

“병해충 예방 기술지원 최선”

허태용 농진청장, 전국 농업기술원장과 영농 현안 점검

치유농업·농업부문 탄소 감축 등 올 중점 추진사항 공유

농촌진흥청 허태용 청장은 29일 본청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9개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업무협의회를 열고, 당면 영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협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각 기관의 조차와 지원을 당부하고, 농촌진흥청이 중점 추진 중인 핵심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허태용 청장은 업무협의회에서 지역별 분할 저온피해 등 영농 현황 파악 및 과수화상병 발생지역과 특별관리 구역의 개하기 방제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허 청장은 “지난 14~19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충북, 전북, 경북 일부지역에서 과수와 인삼 등 노지작물의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며 “생육회복과 병해충 예방,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1~4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아 나무 궤양에 잠복한 과수화상병균의 활동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예찰 강화와 농가에서 예방 약제를 제때 쓸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태용 청장은 2021년 중점 추진 사항인 ▲정년농업인 육성 ▲치유농업 ▲농업부문 탄소 감축 ▲기술실용화를 통한 농업현장 지원 상황 등을 공유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생활을 위해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추진단을 신설하고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농업·농촌 탄소중립 달성을



농촌진흥청 허태용 청장은 29일 본청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9개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업무협의회를 열고, 당면 영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위한 인벤토리(목록) 구축 및 통계고도화 탄소저감 기술 개발, 현장 실천 운동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업 기술실용화제단과 연계하여 우수한 농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 국내육성 신제품 종자·종묘 보급 확산, 디지털농업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 청장은 “지역 특화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지원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 농업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29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9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이·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신임 채정목 회장이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현장 목소리 전달 채널 다양화”

신임 채정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취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9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9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채정목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전북지역 중소기업계의 리더로서, 중소기업의 화합을 도모하고 현안해소 및 권익향상을 모색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임 채정목 회장은 1967년생으로 명지대학교 대표, 전북발전경제위원회 위원, 전북발전커뮤니티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5대 이사장으로 선임돼 6대 이사장까지 연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채정목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취임사에서 “전북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계 권익대변과 전북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식에는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 도의회 농산임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송성환 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철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등 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장들을 비롯해 42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김천 철도건설, 조기에 이뤄져야”

간협 전북도회-경북도회, 국가철도망 신규 반영 성명서 발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와 경북도회(회장 배인호) 양 단체는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전주~김천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요청했다.

윤방섭 회장은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이 전북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교통망 계획 하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0만 전북도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국가 철도망 전북 패싱은 전북도민의 실망감을 넘어 패배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전북지역의 SOC사업은 타 지역과 격차가 더욱 심화돼 전북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고 도민의 원성은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윤방섭 회장은 “호영남 지역민의 오랜 갈증에서 벗어나 국민 대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축이 형성될 것”이라며, “전주~김천 철도 사업을 외면한다면 호영남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역사적인 차원의 용단으로 전주~김천 동서철도 건설사업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천 간 철도망이 구축되면 통행시간 단축, 비용절감 등 접근성으로 전북과 경북 도시 간 연계기능이 강화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물론 동·서 지역간 상생발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방섭 회장은 “호영남 지역민의 오랜 갈증에서 벗어나 국민 대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축이 형성될 것”이라며, “전주~김천 철도 사업을 외면한다면 호영남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역사적인 차원의 용단으로 전주~김천 동서철도 건설사업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류근관 통계청장

전주사무소 방문

류근관 통계청장이 29일 전주사무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류근관 청장은 송해진 전북도지사 면담 전 전주사무소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류 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통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전북지역 거점사무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계량경제학 전문가로 미국 UCLA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제18대 통계청장으로 취임했다.

/김윤상 기자

농어촌공 전북본부
영농대비 지하수시설물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에 대비하고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공사 관리 지하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관정 258개소, 집수정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정상 작동여부,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현지 점검 및 확인을 통해 재해를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불철 강수량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전북지역본부는 재난대책과 지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본부는 지하수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하수 기술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고등급’

국민연금, 친절·서비스 품질·전반적 만족도 등 전 분야 우수 평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21점이 상승한 90.9점을 받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87점보다 3.9점

을 상회하는 점수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에 더욱 의미가 크다.

세부 조사항목별로는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서비스 품질(92점)’, ‘전반적 만족도(91.5점)’을 비롯해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그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CS컨설팅을 실시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국민 제안, 국민연금지문단 고객소리(VOC)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해 실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 중심의 혁신으로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예방 장마철 이전 완료 요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산사태 피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산사태 예방사업을 우기에 이전해 조기 완료를 요청했다.

올해 재해예방사업은 2월부터 조기 착공해 본격적인 장마기 이전인 6월말까지 건설 시공을 완료하여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도 사업량은 산림피해복구 26개소, 사방댐 12개소, 계류보전 4km, 산지사방 2ha 등이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사방시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산림사업장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수출유망중기 내달 14일까지 모집

지정시 수출금융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 우대혜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성장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시행해 2020년까지 전북지역에서 총 760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103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

업 참여 시 우대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5월 14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중기청은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LX ‘서포터즈 랜드리버’ 출범

온라인 발대식 열고 20명에게 위촉장 수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렬·LX)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과 소통에 나섰다.

LX는 온라인(SNS)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LX 국민서포터즈 랜드리버 발대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 가전동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20명의 LX 서포터즈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랜드리버 위촉장 수여 및 활동 포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상 기자

이날 위촉된 LX 서포터즈는 위촉일로부터 연말까지 활동하며 월 1회 이상 LX 관련 콘텐츠 제작과 공사 관련 캠페인 이벤트 참여 등 국민과 소통 메시지 역할을 하게 된다.

김기승 LX 부사장은 영상 인사말에서 “LX 서포터즈의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도움으로 LX가 하는 일을 알리고 국민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LX 서포터즈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신역세권 1단계 공동주택용지 공급 성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군산신역세권 1단계 구역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업체와 지난 28일 계약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필지는 군산신역세권내 중심상업지역과 연결하고 근린역과 가까운 토지로, 878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택지여서 공동택지 확보를 원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LH 전북지역본부는 군산신역세권의 마지막 잔여 공동주택용지(전체 572세대, 60~85㎡ 322세대, 85㎡초과 250세대)를 하반기에 공급하고자 준비 중이며, 해당 택지는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주택건설업체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